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45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이 군경 부문 이일우씨(앞줄 왼쪽부터),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이상분씨, 미망인 부문 최금순씨, 유족부문 이연산씨, 특별부문 이석춘씨.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때 이른 무더위... 건강관리 비상

광주 한달새 수두·유행성 이하선염 급증... 위생관리 필수 응급실 정신질환자 15% 폭염 영향...65세 이상 노인 취약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시민들 사이에 수두 등 각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염과 정신질환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면서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건강 및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관내 의료기관에 신고된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각각 297명과 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각각 96%, 78% 증가한 수치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1주일 정도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환자의 30~40%

정도가 귀밀 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 정도 통증이 있으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로 전파될 수 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예방접종을 제때 하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 5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열과 함께 입안·손발의 수포성 발진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족구병도 매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6월 말 최대치를 기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중증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고열·구토·무기력증·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

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은 아직 예방백신이 없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집 등에서 장난감 등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7명 중 1명은 폭염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불안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3명 중 1명은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은 이날 "2003~2013년 사이 광주시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있었던 폭염과 정신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총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총 11년의 조사 기간에 기온이 상위 1%에 해당하는 29.4도 이상을 폭염으로 정의하고, 같은 기간 정신질환에 의

한 응급실 입원 16만 6579건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이 결과 고온 노출과 정신건강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정신질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14.6%가 폭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은 이런 비율이 19.1%로,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온에 더 취약함을 보여줬다.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비율은 불안이 31.6%로 가장 컸으며 이어 치매 20.5%, 조현병 19.2%, 우울증 11.6%로 집계됐다.

김호 교수는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돼 신체가 체온조절의 한계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와 체온조절 중추의 이상 등으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폭염에 의한 정신질환 피해와 공중보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1:07
해질 19:45 달짐 12:42

덥다~ 더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9/31	보성	맑음	16/28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19/30
여수	맑음	19/27	영광	맑음	17/27
나주	맑음	16/30	진도	맑음	16/26
완도	맑음	18/28	전주	맑음	18/30
구례	맑음	17/31	군산	맑음	17/27
강진	맑음	17/29	남원	맑음	17/31
해남	맑음	17/28	흑산도	맑음	16/23
장성	맑음	16/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북동~동	0.5
남부 먼바다	남서~서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동)	서~북서	0.5	서~북서	0.5
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높음: 자외선
-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8/30	☀	☀	☀	☀	☀	☀	☀
18/30	18/30	19/25	19/25	17/28	17/29	18/29	

주말까지 무더위... 10일 비온 뒤 평년기온

광주·전남은 9일까지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다가 10일 비 소식과 함께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9일까지 평년(낮 최고기온 24~27.8도)보다 높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10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비가 내린 뒤 오후에 점차 그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도~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25도로 전날보다 낮 기온이 최고 6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 수능 모의평가... "선거운동 활성화 시"~

전국 59만2374명 응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전국 2054개 고등학교와 420개 지정학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치러 수험생에게 문항에 적용할 기회를 주고 개선방안을 찾

는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 6월보다 4585명 늘어난 59만2374명이다. 재학생은 51만6411명, 졸업생 등은 7만5963명이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영역(1교시)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러진다. 채점 결과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교육청 50개대 참여 대입 수시박람회

9일 목포 영흥고·10일 순천 복성고...수험생 1:1 상담도

전남도교육청은 "주말과 휴일인 오는 9, 10일 각각 목포 영흥고와 순천복성고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대입 수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부권(목포)과 동부권(순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및 중부권 31개 대학과 영·호남권 19개 대학 등 총 50개 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학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진행된다. 수시 모집 요강 및 홍보자료가 제공되며 입시설명회와 상담도 이뤄진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현지 교사로 구성된 대입현장지원단 37명이 수시 대비 입학정보와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남교육청은 강조했다.

상담 희망 학생과 학부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팀 061-260-0325. /김형호 기자 khh@

"커피 마실때 1회용 컵대신 머그잔 사용해야"

영산강환경청,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 촉진 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시,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소비자연맹,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11개 기관·시민단체·기업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단체는 생산·소비·유통 과정에서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다짐했다. 커피숍에서 플라스틱 용품 사용 줄이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 안 하기 등 생활문화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으로부터 탈출'을 알리고자 광주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장바구니를 나눠 주는 캠페인도 벌였다. 최중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유리잔이나 머그잔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무료 컨설팅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협회

-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발주, 고객 관리 등 통합 대행**
 - 지마켓, 옥션, 수협쇼핑, 우체국 등 판매 대행
 - 대행으로 인한 추가 판매수수료 부담 해소 (부가 직접 일정 시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 부과)
 - 상품문의, 배송문의, 고객 클레임 처리 전담 고객센터 운영
-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
 -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무료 제작
 - 제작된 이미지는 저작권 제한 없이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수산물 패키지 디자인소스 무료**
 - 국내산 수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제공
 -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다운로드
 - 피쉬디자인 소스 활용하여 포장재 제작시 일부 제작비 지원

한국수산물협회는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수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한국수산물협회 소비촉진팀 T. 02-589-0633